

경장(나라 시대 국보)

대강당 서쪽에 자리하고 있는 경장은 원래 경전을 보관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지만, 현재는 602년에 백제에서 일본으로 건너왔다고 전해지는 승려 관륙 승정의 좌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.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 중 하나인 『일본서기(日本書紀)』에 따르면 관륙 승정은 일본에 처음으로 천문학과 태음력을 전했다고 합니다.

경장에는 호류지 절의 세 후쿠조(伏藏, 복장: 지하 창고) 중 하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. 후쿠조에는 호류지 절에 큰 환란이 닥치더라도 다시 재건할 수 있을 만큼의 재산과 보물이 보관되어 있다고 전해집니다.